

혁명적신념과 량심은 혁명가와 배신자를 가르는 시금석

리 금 옥

혁명적신념과 량심은 혁명가와 배신자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신념은 혁명가에게 있어서 생명이며 진짜혁명가와 가짜혁명가를 가르는 시금석입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2권 467페이지)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귀중한것이 신념이고 량심이며 혁명가는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지녀야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다.

혁명적신념과 량심이 혁명가와 배신자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혁명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표현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진가를 평가하는 기본척도이기때문이다.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되는 수령의 위업이다. 수령에 의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이 창시되고 혁명의 주체적력량이 마련되며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완성되어나간다. 태양이 없는 꽃을 바랄수 없는것처럼 수령이 없는 혁명의 승리란 있을수 없다.

이로부터 혁명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게 된다.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지닌 사람만이 평범한 나날에나 준엄한 나날에나 오직 한모습으로 수령에게 충정다할수 있다. 수령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득한데 기초하여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다.

그러나 혁명적신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혁명의 준엄한 시기에 투쟁을 포기하게 되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없다.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확신한 사람은 단 하루의 꺾뻗한 삶을 위해 천날고생도 달게 받아들이며 자기를 키워준 수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폭도 하고 교수대에도 서슴없이 올라선다. 이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한 사람만이 수령이 이끄는 혁명의 한길에서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목숨바쳐 관철하며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혁명투쟁에 대한 수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데서 혁명적신념과 함께 혁명적량심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혁명적량심을 도덕품성으로 소유한 사람은 수령을 정치적생명의 은인,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일상생활과정에서 수령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일을 하였을 때에는 최대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수령께 걱정을 끼쳐드렸을 때에는 최대의 량심적가책을 받게 된다.

그러나 량심이 없는 인간들은 혁명의 리익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으며 특히 혁명이 시련을 겪는 시기 자기를 키워준 수령의 하늘같은 은덕을 저버리고 더러운 배신의 길을 걷는다.

우리 혁명의 첫 세대들인 항일혁명투사들은 그 누구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

라 자기의 혁명적량심으로부터 스스로 손에 무장을 들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나섰다.

그들은 순결한 혁명적량심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였으며 혁명의 불비속을 헤치면서 끝까지 견결하게 싸웠다. 그들은 혁명적량심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긴것으로 하여 철창속에서도 혁명적절개와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오늘 새로운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온 우리 혁명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우리 혁명위업이 승승장구할수록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말살하기 위한 혁명의 원수들의 책동도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혁명의 원수들은 우리의 혁명위업에 도전하여 정치, 군사, 경제적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억척같이 자리잡은 당과 수령,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믿음과 자기 령도자만을 따르는 깨끗한 량심을 허물어보려고 비렬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오늘의 시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가로서의 고귀한 삶을 빛내이며 투쟁해나가기 위하여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깨끗한 량심을 지닐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적신념과 량심으로 간직된 충실성만이 가식과 변심을 모르는 참다운 충실성으로 될수 있으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량심으로 간직한 사람들만이 언제 어디서나 누가 보건말건 혁명가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수 있다.

혁명적신념과 량심이 혁명가와 배신자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혁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규정하는 기본징표이기때문이다.

혁명적신념과 량심은 혁명가가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정신적요인이다. 사람의 가치와 품격이 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투쟁하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면 그것을 결정하는 근본요인이 바로 혁명적신념과 량심이다.

혁명적신념은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며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려는 굳은 각오와 의지이다. 혁명적량심은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고 개인의 리익보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도덕적의무를 충실히 지키려는 아름다운 마음이며 높은 책임감이다.

혁명적신념과 량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의 목적을 뚜렷이 자각하게 하고 혁명투쟁에 떨쳐나서도록 적극 작용한다.

사람이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가지게 되면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비추어 객관적조건과의 관계에서 리해관계의 판단수준이 높아지게 되며 혁명에 대하여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일떠서게 된다.

혁명적신념은 혁명가로 하여금 가장 숭고하고 보람찬 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 투쟁해나갈수 있게 하는 든든한 마음의 기둥이다.

혁명가는 혁명적신념을 지녀야 혁명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뚜렷한 생의 목표를 세우고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도 완강히 뚫고나가는 투지를 지닐수 있으며 명예와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을 하는것을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목적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해나갈수 있다.

혁명적량심은 누가 보건말건 혁명의 리익을 앞에 놓고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사람들을 추동한다. 혁명가는 혁명적량심을 지녀야 한번 택한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가려는 각오를 가지고 사회와 집단,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한생을 묵묵히 바쳐나가게 된다.

적들의 만행에 의하여 두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높이 웨치고 사령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혀를 끊은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에 대한 숭고한 태도는 그들이 지닌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정신적원천으로 하고있다.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지니지 못하고 뚜렷한 목적이 없이 일시적인 흥분이나 충동에 의하여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은 종당에는 혁명을 포기하고 배신의 길로 굴러떨어진다.

혁명적신념과 량심이 혁명가와 배신자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가 중도반단하는가 하는것을 결정하는 척도이기때문이다.

사람들이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그 어떤 주저나 동요도 없이 역세게 걸어나가자면 혁명적신념과 량심이 있어야 한다.

혁명적신념이 확고하고 량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고 준엄한 시련이 닥쳐와도 혁명가의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킬수 있지만 신념이 없고 량심이 없는 사람은 자그마한 난관이 제기되고 일시적인 시련이 닥쳐와도 동요하게 된다.

사람에게 신념과 량심이 없으면 환경과 조건의 포로가 되고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 처하고 난관에 부딪칠 때 레외없이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며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면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고 투쟁을 포기하거나 중도반단하게 된다. 신념이 확고하지 못하고 량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패배주의밖에 나올것이 없다.

신념이 투철하고 량심이 있는 사람은 역경에 처해도 비관하지 않고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으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못해낼 일이란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그 어떤 난관도 박차고 희생도 두려워함이 없이 투신하게 된다.

결국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지닌 사람들은 화를 복으로 만들수 있고 최악의 역경도 순경으로 전환시킬수 있으며 불가능도 가능으로 되게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

자기 위업에 대한 도덕적책임감을 망각하고 그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시련앞에서 동요하게 되고 난관앞에서 주저앉게 되며 종당에는 혁명을 배신하게 된다는것은 지나온 력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지닌 사람들은 혁명가로서의 절개를 지켜 원수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고 반대로 신념과 의지가 박약하고 량심이 없는 사람들은 혁명가로서의 존엄을 버리고 배신과 굴종의 길에 굴러떨어졌다.

지나온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확고한 혁명적신념과 깨끗한 량심을 가진 혁명가들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해온 승리의 로정이었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지니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였으며 혁명대오의 순결성을 고수하여왔다.

혁명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를 혁명적신념과 량심으로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해나갈것이다.